

1999년8월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국회운영위원장(손세일) 사임의 건
- 4.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 수해의연금 각출의 건 2
- 5분자유발언 2
- 1. 제2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 2.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
- 3. 국회운영위원장(손세일) 사임의 건 6
- 4.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6
- 상임위원장(국회운영 박상천) 인사 7

(15시25분 개의)

○의장 박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임종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부 일원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근무 중이던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하천의 범람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수해를 입은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작년과 지난 96년에도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인명상·재산상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아직도 복구가 다 끝나지 않은 그런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수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예산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심의할 때 그 수해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자체의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아까 제가 이 단 위에 올라오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시는 광경을 보고 여러 의원들이 이 수해문제에 대해서 긴급히 국회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치·경제현안에 관한 긴급 현안질문에 앞서서 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나오시니까 수해대책에 관한, 수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넘지 않는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날짜를 다시 잡아 가지고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응답을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지금 밤샘 대책에 바쁘고 정부 장관도 바쁠 테니까 긴급 보충질문이라는 이런 형태를 빌려 가지고 예외입니

다마는 나오신 장관들이 총리 이하 행자부장관, 농림부장관 다 나오시니까 수해에 대한 대책 질문을 한 당에서 한 사람씩만 보충질문 형태를 빌려서 그 긴급질문 플러스 그것까지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 3당에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수해의연금 각출의 건

(15시31분)

○의장 박준규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각 당에서 의연금을 여러 가지 각출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과거의 관례를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8월분 세비에서 3% 상당액을 수재의연금으로 각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중복이 될 줄 압니다마는 총무단에서 협력을 하셔서 가지고 국회 전체로서 각 의원들이 8월 달 세비에서 3% 각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박준규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수해상황은 또 내일 올가가 올라오는데 5분 발언도 거기에 맞도록 수준을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북 을구 출신이신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수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입니다.

수해가 나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연 3년에 걸쳐서 이 수해가 나도록 한 데 대한 정부의 다시 없는 항구대책이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여당의원들, 야당의원들 모두 합심해서 노력합니다. 그 밖에 수해에 관한 대목은 우리 의장님 말씀 뒷부분 이하동문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일간지를 통해서 야당 한나라당 의원 십수 명이 지난 대선자금 받아서 남의 개인 계좌에 묻어 놓고 사용(私用)을 하고, 이런 정치공세를 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했는지, 청와대 사직동팀이 이것을 했는지, 그 보고를 받고 청와대의 사정담당 비서관이 했는지, 국민회의의 고위관계자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자는 지금은 밝혀려고 해도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대정치공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대선자금을 가지고 야당을 파괴하고 음해하는 공작을 펴는 것은 중국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와 같이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에 이르는 야당파괴 음해공작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정말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치보복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야당을 음해하고 내년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이겨야 되겠고 3년 뒤의 대선에서 또 이겨야 되겠고 이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히신다면 이 나라 정치는 끝장이 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비가 와서 목숨도 잃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시점에 제발 정부여당이 좀 더 올바른 자세로 국정에 임해 주고 야당을 올바르게 대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위 야당에게만 그렇게 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대선자금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검찰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민란이 일어날까 봐 수사를 중지한다고까지 검찰총장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도 되셨고 민란이 일어날 아무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비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정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DJP 대선공약을 스스럼없이 파기해 놓고 어물쩍 그냥 넘어가고자 한, 지방에 가서 순시를 하면서 기자 질문에 대해서 유감의 뜻 한 번 가볍게 표명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 바로 DJP 대선공약은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열쇠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통령직을 사임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을 십여 명 또다시 물귀신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조 시대의 연산군과 광해군 같은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는 임금, 오늘날 그런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세종대왕……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성종과 같은 선정으로 위업을 남기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보좌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자, 우리 수해 얘기합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 하십니까?

○이규택 의원 우선 오늘 보도에 의하면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거리에 쏟아지고 가옥이 침수되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우선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 3년에 걸쳐서 이상야릇하게 파주, 연천 또 동두천 그쪽에서만 자꾸 수재가,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작년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수해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수재의연금도 각출하고 또 각 당에서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터졌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터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현 정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800만 경기도민에 대한 멸시와 또 한 가지 이것은 바로 소위 말하면 예산에 대한 책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번에 오늘자로 직무유기를 하고 또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시중에 떠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광태 의원 의석에서 — 헛소리하면 말이 막혀 버려.)

박광태 의원, 요즘에 우리 야당의원들이 시중에 소문이 뒤편고 났느냐 하면 형무소 돌담 위를 걸어가는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그러합니다. 우리 야당의원들이…… 얼마나 보복을 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 한나라당 야당과 이회창을 죽이기 위해서 몰두하니까 국민들의 입에서 여기 저기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당은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선거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DJP정권의 야당 파괴공작과 이회창 총재 죽이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DJP정권은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이회창 총재의 대선자금을 끄집어내 가지고 국면을 전환시키는 전가의 보도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패자의 대선자금을 문제 삼아서 재탕, 3탕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네 번이나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세 번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당선되었습니다. 세 번 떨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비판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최대의 라이벌이자 총재이지만 야당총재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도의는 지켰던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3금법을 제정해서 정치보복을 안겠다고 그랬습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신의를 꼭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선자금을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즉각 특검제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DJP 자금 20억 플러스알파, 1670억 원 97년도 여야 대선자금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직동팀, 즉각 해체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당합니다. 다음에는 DJP정권은 절대 서부영화에서 나오는 비겁자 처럼 등 뒤에서 총을 절대 쏘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때가 되면 다 또 돌아옵니다.

우리 여당의원들께서 여기에 앉아서 여기 얘기하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언젠가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규 의장이 순서를 잘못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덕진 출신이신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정동영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의사당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흘째 쏟아진 폭우로 3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방금 전에 중랑천 상류가 범람해서 노원구 일대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해 와중에서 열린 국회라면 당연히 재해대책과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재해와는 상관이 없는 이슈를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된 사실 자체가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세풍 잔금 유용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는 맡기고 여야는 정쟁을 중지하고 당면한 수해극복 그리고 경제위기문제에 대해서 합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상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4일입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께서는 이미 세풍사건을 두고 국민 앞에 사과하셨습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불법 모금된 자금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 금고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세풍자금 가운데 정당 금고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통장에 들어가서 개인 멋대로 써 버린 의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금이 국고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이 정당 금고로 들어간 것도 나쁜 일이지만 더더구나 이것을 개인이 썼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떠한 파렴치한 범죄보다도 더 중요한 범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세풍 잔금의 착복 부분에 국한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고 야당 말살, 그리고 야당 파괴 운운하면서 본질을 희석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그 뒤에 무엇인가 부도덕한 범

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을 확산시킬 뿐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세풍 자금 가운데 정당에 들어가서 대선자금으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야의 대선자금 공동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세풍 잔금 유용의 부도덕성을 은폐하기 위한 몰타기 주장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라당도 이제 세풍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세풍의 고리를 끊고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규명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세풍의 잔금을 유용한 것으로 그 실명과 액수가 거론된 분이 결백하다고 하다면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세풍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석희 씨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 차원에서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에 기본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정치 쟁점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 피해 와중에서 수재민 말고도 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은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농민들은 농가부채 저리전환을 기다리고 있고 어민들은 어업협정에 따른 피해보상특조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세풍국회가 되어서는 15대 국회가 제헌 이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선거자금을 조성한 나라가 있고 더더구나 이 돈을 개인이 빼서 개인통장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세풍 자금의 개인착복이 사실이라면 이회창 총재가 책임져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세풍 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에 맡기고 냉정한 자세로 국회가 할 일에 여야 모두 합심해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다음은 전남 순천 갑구 출신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입니다.

수해가 많이 났는데 수해에 대한 애도의 뜻, 걱정의 뜻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새삼스럽게 요즈음도 치산치수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의 한 목록이구나 하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면서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수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문을 열었던 제205회 임시국회가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부 장관의 긴급체포에 따른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인해서 204회 임시국회에 이어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이 세풍에 대한 고리를 끊는 것이 이 나라의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세풍에 관계된 사람은, 직간접으로 관계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네 번의 이신행 방탄국회, 여섯 번의 서상목 방탄국회, 열 번에 걸쳐서 국회를 파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애를 쓰셔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 야당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도덕적 지도력과 성실성으로 많은 여당 의원이나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감동스러운 의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열 번의 임시국회를 열면서 보니까 제193회 임시국회부터 203회에 이르기까지 열 번 동안에 315일간의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중에 본회의 개회일자가 기껏 54일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시간은 144시간 6분에 불과합니다. 총 7560분의 시간 동안 144시간 6분 동안 개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회 중에도 대여섯 번에 걸쳐서 한나라당이 불참을 했거나 아니면 퇴장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책임도 있고 또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책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세풍은 세풍이고 국정은 국정이요 하는 입장을 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

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이조 말기에 3정의 문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3정은 군정, 전정, 환정 또는 환곡이라고 그러합니다. 전정이라는 것은 요즈음 말로는 경제입니다. 군정이라는 것은 군사문제입니다. 환정 혹은 환곡은 세금 걷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세금까지 붙여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합시다. IMF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나라당이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하시던 분이 아들의 병역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 군정을 흐트러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가지고 이 나라를 흐트리게 하는 3정문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3정의 문란은 문란이고 국정은 국정이요 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옳지요?

책임 없다는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 이제 진심으로 한나라당이 고유한 야당의 자세와 명분을 가지고 의사일정에 협조해서 그래도 이 수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희망을 걸고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정치풍토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5분자유발언 제도가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제2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15시55분)

○의장 박준규 서로 다 잊어버리고 의사일정 제 1항에 들어갑시다.

제2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8월 13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 성남 수정 출신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윤수 국회운영위원회 이윤수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정치문화 조성, 저비용 선거풍토의 정착, 그리고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등 정치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인 98년 4월 24일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음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이 심사 처리되지 못한 채 지난 7월 16일자로 동 특위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야합의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과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 개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의 수는 24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하고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999년 10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그러면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운영위원장(손세일) 사임의 건

(15시59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3항 국회운영위원장(손세일)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1조제5항, 그리

고 제11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손세일 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동의를 이의유무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손세일)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사표를 받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의장 박준규 자, 이제 마음을 돌리고 의사일정 제4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합니다.

김문수 의원, 정의화 의원, 조익현 의원, 인천계양·강화갑구 출신인 안상수, 서로 상(相)자입니다. 안상수 의원, 김민석 의원, 정세균 의원, 강종희 의원, 김의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임종훈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란 안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시01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변웅전 의원 단하에서 — 투표지가 교체될 때까지 투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규 투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몇 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가 바뀐 모양입니다. 지금 쓰시는 분도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3분 투표중단)

이제 되었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6시06분 투표재개)

○의사국장 임종훈 호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규 빠지신 분 2~3분 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은 지금 곧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투표하실 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투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투표를, 투표함을 닫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1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하니깐 234매가 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3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를 계속하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는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투표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148표를 얻은 박상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희 의원 8표, 남경필 의원 1표, 박신원 의원 1표, 박찬주 의원 2표, 방용석 의원 1표, 오양순 의원 1표, 이규택 의원 1표, 이부영 의원 19표, 이윤수 의원 3표, 기권 12표, 무효 37표)

○ 상임위원장(국회운영 박상천) 인사

(16시30분)

○의장 박준규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국회운영위원장 박상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국회의사당에 정치가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치의 중심이 국회의사당에서 거리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15대 국회가 1년도 못 남은 임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15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국회운영을 맡은 위원회의 책임자로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여야 간에 대화정치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훌륭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어느 쪽이든 완승이 있고 완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승과 완패는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 소수파를 소외시키거나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살 수 있는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지금 인사하신 대로 좋은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참 조)

의사일정

1999. 8. 2~8. 13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8. 2(월) 14:00	1. 제2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정치개혁입법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국회운영위원장(손세일) 사임의 건 4. 국회운영위원장 보궐 선거	○8. 2~8. 13 (12일간)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8. 3(화) 14:00	1. 최근의 주요 정치·경제현안에 관한 긴급 현안질문 ※ 휴회결의	○8. 4~8. 11 (8일간)
8. 4(수) ~ 8. 11(수)	휴회(8일간)	○상임위 활동 -추경 예비심사 (8. 4~8. 5 : 2일간) -법률안 등 안전심사 (8. 4~8. 11 : 8일간) ○예결위 활동 -추경예산안 심사 (8. 6~8. 11 : 6일간)
8. 12(목) ~ 8. 13(금) 14:00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안건 처리	

김 허 남 김 현 옥 김 형 오 김 호 일
 김 흥 신 김 흥 일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공 진 노 기 태 노 무 현 노 승 우
 류 선 호 류 재 건 류 종 수 류 홍 수
 맹 형 규 류 목 요 상 박 관 용 박 광 태
 박 구 일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범 진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성 범 박 세 직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신 원
 박 우 병 박 원 흥 박 정 수 박 정 훈
 박 중 근 박 중 우 박 중 용 박 주 천
 박 준 규 박 찬 주 박 태 준 박 헌 기
 박 회 태 방 용 석 배 중 무 백 남 치
 백 승 흥 변 용 전 변 정 일 서 상 목
 서 석 재 서 정 화 서 청 원 서 한 샘
 서 훈 설 훈 손 세 일 송 업 교
 송 현 섭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기 남
 신 상 우 신 영 국 신 영 균 심 정 구
 안 상 수 안 상 수 안 재 홍 안 택 수
 양 성 철 양 정 규 어 준 선 오 세 응
 오 양 순 오 용 운 오 장 섭 원 유 철
 유 용 태 윤 원 중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회 이 건 개 이 경 재
 이 국 현 이 규 택 이 공 규 이 길 재
 이 동 복 이 미 경 이 부 영 이 상 수
 이 상 현 이 상 회 이 성 재 이 성 호
 이수인 이 신 범 이 양 회 이 영 일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용 회 이 원 범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윤 수 이 응 선
 이재명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무
 이택석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형 배 이 훈 평 임 북 진
 임 인 배 임 진 출 임 채 정 장 성 원
 장 영 달 장 영 철 장 을 병 장 전 석 흥
 전 용 원 정 균 환 정 동 영 정 동 채
 정 상 구 정 석 모 정 세 균 정 영 훈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일 영 정 재 문
 정 창 화 정 한 용 정 형 근 정 호 선
 정 회 경 조 성 준 조 세 형 조 순 형
 조 영 재 조 웅 규 조 의 현 조 진 형
 조 찬 형 조 한 천 조 흥 규 주 진 우
 지대섭 차 수 명 조 채 영 주 진 배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재 승 천 정 배
 추미애 하 경 근 최 재 승 최 회 준
 한영수 한 영 애 한 화 갑 한 화 갑 함 석 재
 허 남 훈 허 대 범 홍 문 홍 홍 사 덕

○출석 의원(252인)

강 경 식 강 삼 재 강 성 재 강 용 식
 강 종 희 강 창 희 강 현 옥 국 창 근
 권 기술 권 영 자 권 오 을 권 정 달
 권 철 현 길 승 흙 김 경 재 김 고 성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수 김 기 춘
 김 길 환 김 덕 김 덕 룡 김 동 옥
 김 동 주 김 명 규 김 명 윤 김 문 수
 김 민 석 김 범 명 김 병 태 김 봉 호
 김 상 우 김 상 현 김 선 길 김 성 곤
 김 수 한 김 영 구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일 김 영 준 김 영 진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환 김 운 환
 김 원 길 김 윤 환 김 의 재 김 인 곤
 김 인 영 김 일 윤 김 일 주 김 재 천
 김 정 수 김 중 배 김 중 하 김 중 학
 김 진 배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찬 진
 김 충 조 김 태 랑 김 태 식 김 학 원

황규선	황낙주	황우여	황학수
○청가 의원(23인)			
권익현	김광수	김무성	김복동
김용갑	김정숙	김종필	김중위
김철환	박철언	이사철	이상만
이상배	이석현	이용삼	이인구
이중재	이태섭	정문화	최형우
한승수	한이현	함종한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봉호
7월 25일부터 의장 귀국 시까지
(1999. 7. 24)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장영달
7월 19일부터 위원장 귀국 시까지
(1999. 7. 19)

정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김민석
7월 22일~8월 5일 (15일간)
(1999. 7. 22)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황우여 김영선 김재천	한나라당	1999. 7. 27
	나오연 이웅선 이신범		
	허대범 김광원 김찬진		
	전석홍 이재오 김형오		
	이경재 권오을 박종근		
	신영국 박시균 황성균		
	김문수 권철현 김진재		
	권기술 이재창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조홍규 국창근 정세균	새정치 국민회의	1999. 7. 27	
	김상우 정희경 권정달			
	장영달 장성원 박종우			
	박범진 유용태 길승흠			
	송훈석 김명규 김명섭			
	방용석 황학수			
	이상만 지대섭 허남훈			자유민주 연합
	김중학 어준선 김의재			
	오장섭 김동주 이재선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한국조폐 공사과업 유도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	김문수 정창화 서 훈 김재천 안상수 박원홍 김영선	한나라당	1999. 7. 30
	김태식 조성준 방용석 정세균 천정배	새정치 국민회의	
	이건개 김일주 이재선	자유민주 연합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이회창	국 방	보건복지	한나라당	1999. 7. 9
이수인	보건복지	교 육		
하순봉	교 육	국 방		
이재오	법제사법	교 육	한나라당	1999. 7. 10
이수인	교 육	법제사법		
이회창	보건복지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나라당	1999. 7. 14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수인	법제사법	교 육	한나라당	1999. 7. 20
황우여	교 육	법제사법		
이훈평	국 방	문화관광	새정치	1999. 7. 27
장을병	문화관광	국 방	국민회의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	손세일	박상천	새정치 국민회의	1999. 7. 13
		이윤수	새정치	
국회운영	유용태 서한샘	윤철상	국민회의	1999. 7. 15
		박상천	새정치 국민회의	1999. 8. 2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구대표의원	신대표의원	교섭단체	연월일
손세일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1999. 7. 13

○의안 제출

수도권매립지관리에관한법률안

(7월 8일 이미경·김범명·방용석·강종희·서훈·김상현·김경재·김광수·김성곤·김원길·김종배·김종하·김홍신·박범진·박상규·박세직·박정훈·박찬주·안동선·양성철·류재건·이규정·이길재·이성재·

이재오 · 장영달 · 장을병 · 장재식 · 조성준 · 조순승 · 조영재 · 조응규 · 지대섭 · 설훈 · 홍사덕 · 박종웅 · 정의화 · 김영환 · 박원홍 · 김문수 · 임인배 · 윤원중 · 장성원 · 이수인 · 이상희 · 김인곤 의원 외 2인 발의)

7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7월 8일 류선호 · 이상수 · 장영철 · 손세일 · 김옥두 · 김충조 · 박상규 · 박종우 · 원유철 · 이성호 · 장성원 · 정균환 · 추미애 · 홍문종 의원 외 91인 발의)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7월 8일 정부 제출)

7월 1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7월 9일 이국현 · 최연희 의원 외 131인 발의)

7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7월 10일 이성재 · 김명섭 · 채영석 · 김성곤 의원 외 17인 발의)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운영위원장(손세일) 사임의 건

(7월 13일 손세일 의원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7월 15일 이택석 의원 외 20인 발의)

7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월 20일 정부 제출)

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월 21일 김병태 · 이영일 · 길승흠 · 국창근 · 김명규 · 김충일 · 박종우 · 배종무 · 서한샘 · 송훈석 · 양성철 · 유용태 · 류재건 · 이훈평 · 장성원 · 정호선 · 정희경 · 정한용 · 최선영 · 최희준 · 황우여 의원 외 12인 발의)

7월 2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7월 23일 정부 제출)

7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월 24일 정부 제출)

**7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7월 24일 정부 제출)

7월 26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7월 24일 이상배 의원 외 41인 발의)

7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을위한특별법안

(7월 30일 이상희 · 김도연 · 김명섭 · 김중위 · 김형오 · 박관용 · 박우병 · 박헌기 · 백남치 · 안상수 · 안택수 · 이경재 · 이미경 · 이부영 · 이재오 · 이재창 · 정의화 · 하경근 · 한이헌 · 황성균 의원 발의)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제2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월 2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8월 2일~8월 13일 (12일간)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월 2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8월 2일 이상수 · 김종학 · 임채정 · 차수명 · 박상천 · 함석재 · 조찬형 · 송업교 · 박찬주 · 류재건 · 조순형 · 조홍규 의원 외 146인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심사

국회의원(류재건) 징계요구의 건

(1996년 7월 16일 서청원 의원 외 150인 발의)

국회의원(이부영) 윤리심사요구의 건

(3월 16일 류선호 · 방용석 · 서한샘 · 송훈석 · 유용태 의원 외 99인 발의)

국회의원(백승홍) 징계요구의 건

국회의원(박원홍) 징계요구의 건

국회의원(신영국) 징계요구의 건

(이상 3건 5월 11일 손세일 의원 외 104인 발의)

국회의원(김옥두) 징계요구의 건

국회의원(최재승) 징계요구의 건

국회의원(이윤수) 징계요구의 건

국회의원(설훈) 징계요구의 건

국회의원(한영애) 징계요구의 건

국회의원(이훈평) 징계요구의 건

(이상 6건 5월 13일 이부영 의원 외 131인 발의)

(이상 11건 7월 13일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안 철회

방송법안

(1996년 10월 15일 박상천·이정무·이해찬·허남훈·정균환·이건개·신기남·지대섭·이상수·권수창·류선호·이양희·천정배·황학수·정동채·이병희 의원 외 112인 발의)
7월 9일 박상천·이정무·이해찬·허남훈·정균환·이건개·신기남·지대섭·이상수·류선호·이양희·천정배·황학수·정동채 의원 철회 요구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법률안

(1996년 10월 15일 박상천·이정무·정균환·이건개·신기남·지대섭·이상수·권수창·류선호·이양희·천정배·황학수·정동채·이병희·최재승·정상구 의원 외 112인 발의)
7월 9일 박상천·이정무·정균환·이건개·신기남·지대섭·이상수·류선호·이양희·천정배·황학수·정동채·최재승·정상구 의원 철회 요구)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법률안

(1996년 11월 15일 이정무·박상천·허남훈·이해찬·이건개·김진배·조영재·이상수·이양희·신기남·권수창·류선호·이병희·천정배·정상구·길승흠 의원 외 112인 발의)
7월 9일 이정무·박상천·허남훈·이해찬·이건개·김진배·조영재·이상수·이양희·신기남·류선호·천정배·정상구·길승흠 의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도시재개발법 개정에 관한청원

(1999년 7월 7일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0 한나라당 성북갑지구당위원장 심의석 외 334인으로부터 강성재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7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7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로부터 김근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농어촌특별세 감면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72-3 주식회사 강원은행 은행장 민창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은

행장 위성복으로부터 장재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7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법률 한글화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4 한글학회 회장 허용 외 9인으로부터 정문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7월 9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국유지 매각 등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54-5 권응삼 외 10인으로부터 조진형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농축산업협동조합법 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14일 경북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154 이종준 외 152,468인으로부터 김중위 의원 소개로 제출)
7월 1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77 미진빌딩 4층 Pax Koreana 21연구원 원장 조병윤 외 192인으로부터 조순형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봉급자보험료과잉부담저지및사회보험개혁법국민대책회의 박인상 외 2인으로부터 조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21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1동 3-17 303호 극일운동시민연합 의장 황백현으로부터 이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 기능직공무원 감축방안 재검토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430-8 이상규 외 7931인으로부터 안상수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7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26일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12 진중진으로부터 이완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보증책임제한법 제정에 관한청원

(1999년 7월 27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 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으로부터 김근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27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로부터 홍사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7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통신카드(주) 지정 제조업체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청원

(1999년 7월 2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산 451-42 (주)코코마 대표이사 박민용 외 2인 으로부터 박범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최근의 주요 정치·경제현안에 관한 긴급현안 질문 요구서

(7월 30일 이부영 의원 외 133인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질문서

(7월 7일 이강두 의원 제출)

7월 8일 정부에 이송

교육현장에서 남녀차별행위에 관한 질문서

(7월 13일 방용석 의원 제출)

7월 14일 정부에 이송

금성산되찾기시민연합의 민원에 관한 질문서

(7월 15일 장영달 의원 제출)

7월 16일 정부에 이송

미취학아동 중 결식아동에 관한 질문서

(7월 19일 김문수 의원 제출)

7월 20일 정부에 이송

한국건설자원공영과 수도권골재비축기지에 관한 질문서

(7월 22일 김문수 의원 제출)

7월 22일 정부에 이송

중계유선사업에 관한 질문서

(7월 23일 이경재 의원 제출)

7월 24일 정부에 이송

옷로비 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관한 질문서

옷로비 의혹사건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7월 24일 이규택 의원 제출)

이부남·정순옥 민원에 관한 질문서

(7월 24일 장영달 의원 제출)

이상 3건 7월 26일 정부에 이송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질문서

(7월 27일 김문수 의원 제출)

7월 28일 정부에 이송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기관지에 관한 질문서

한국공영특별단체교섭에 관한 질문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에 관한 질문서

(이상 3건 7월 29일 조찬형 의원 제출)

이상 3건 7월 30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경성사건 관련 재판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7월 7일 정부 제출)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삼성물산의 시세조정 의혹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실시현황과 대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금감원의 한국토지신탁조사 결과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4건 7월 10일 정부 제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7월 14일 정부 제출)

국가자본의 해외유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SK텔레콤의 유상증자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재벌계열금융사의 시장지배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7월 15일 정부 제출)

택시업계 지입차 운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7월 21일 정부 제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7월 22일 정부 제출)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7월 26일 정부 제출)

교육현장에서 남녀차별행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7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1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제206회국회(임시회) 집회 공고

일 시	1999년 8월 2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1항
집회요구자	한나라당 이부영 외 133인
공 고 자	국회의장직무대리 김 봉 호

(1999. 7. 30)